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1) : 19~27, 2014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5(1) : 19~27, 2014
<http://dx.doi.org/10.7856/kjcls.2014.25.1.19>

부산지역 남녀 대학생의 음주태도 및 음주행태 비교분석

강 지 은 · 최 한 석 · 최 지 호 · 여 수 환 · 정 석 태 · 김 미 향^{1)†}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과 ·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

A Comparative Analysis of Drinking Attitudes and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in Busan

Ji-Eun Kang · Han-Seok Choi · Ji-Ho Choi · Soo-Hwan Yeo · Seok-Tae Jung · Mihyang Kim^{1)†}
Fermented Food Scienc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Suwon,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Silla University, Busan, Korea¹⁾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drinking attitudes and behaviors of university students. The sample included 355 students living in Busan, Korea. The questionnaire addressed general background information (gender, age, grade and monthly pocket money), drinking attitudes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alcohol on the body, stereotype of drink, age at the first drink, the drinking companion at the first drink, reasons for starting to drink, main drinking companions, major reasons for drinking, the history of drinking alone, and reasons for drinking alone), drinking behaviors (the cost of each drinking occasion, drinking amounts, the frequency of drinking, the frequency of heavy drinking, the type of alcoholic beverage, and the places of drinking). A few respondents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started drinking while in high school ($p < 0.05$), and most respondents drank with friends (males: 91.0%, female: 92.2%). The main reasons for drinking were the mood for male student (46.3%) and relationships for female student (49.1%) ($p < 0.05$). Male respondents consumed more than seven glasses of soju (39.9%), whereas female respondents, five to seven glasses (49.7%) ($p < 0.05$). On average, the respondents drank one to two times a week (males: 47.9%, females: 51.5%) and experienced heavy drinking one to three times every three months (males: 19.1%, females: 21.0%) ($p < 0.05$). The results suggest that students with frequent alcohol consumption and heavy alcohol dependence are likely to face problems and thus require aggressive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target them specifically.

Key words: drinking attitude, drinking behavior, university students

이 논문은 농촌진흥청 기관과유사업(과제번호:PJ00946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접수일: 2014년 1월 21일 심사일: 2014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23일

[†]**Corresponding Author:** Mihyang Kim Tel: 82-51-999-5620 Fax: 82-51-999-5457
e-mail: mihkim@silla.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대학생활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서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 활발하며 식품섭취에 있어서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이때의 영양섭취는 장년 및 노년기의 건강대비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수험생 시절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식욕감퇴와 생활리듬 변화에 따른 결식, 간식과 야식의 증가, 단순한 식사 내용 등 바람직하지 못한 식행동에 이어 과도한 음주 및 흡연,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특정 영양소의 결핍과 빈혈, 위장장애, 변비와 같은 건강상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Cheong et al. 2007).

특히, 사회문화의 급속한 발달과 복잡성,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향락주의가 만연해지면서 무질서한 흡연과 음주문화가 대학 내에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며 이중 알코올의 오남용은 대학생들에게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키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 대학생들은 대부분 음주를 하며 이중에는 법적 허용연령인 만 19세 미만의 학생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들의 음주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폭력, 음주운전, 성폭력 등의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Nam 2009). 사회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자 비율은 68.6%(남자 82.7%, 여자 55.3%)로 나타나 있다. 연령별로는 20~29세에서 80.8%로 음주자 비율이 가장 높고 또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인 77.5%로 가장 많다(Kim & Kim 2010). 대학생 음주문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더 이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나 알코올 관련 단체 등에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음주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알코올 연구결과에서 대학생의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90%를 넘고 있음을 볼 수 있다(Chun 2002). 대학생 시절의 음주행위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되며 이는 스트레스나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Kim & Han 2011). 그래서 이들에게 절주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대학 내 음주 환경을 개선하여 음주문화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음주 태도 및 음주 행태를 비교 분석하여 올바른 음주 문화를 마련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사항,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여부, 성별에 따른 음주 여부, 첫 음주시기, 첫 음주 함께한 사람, 첫 음주 이유, 주로 음주하는 사람,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 혼자 마신 경험, 혼자 마시는 이유, 한 달 용돈, 음주비용, 음주섭취량, 음주횟수, 과음횟수, 술의 유형, 음주장소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본 연구는 교차분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부산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중 음주를 하는 학생 400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성별에 따라 음주태도 및 음주행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원 자료는 2008년 9월 4일부터 9월 8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여 수정, 재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8년 9월 19일부터 9월 30일에 걸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40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371부 중 불완전한 응답지 16부를 제외한 나머지 설문지 총 355부(남학생 188명, 여학생 167명)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고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적 의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6개월 이내 음주 경험 유무에 따라 음주, 비음주군으로 구분하여 음주군만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음주 태도 및 음주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는 자기 기록방법으로 30분 동안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Choi et al. 2001; Jung 2004; Jung 2008). 조사항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4문항(성별, 나이, 학

년, 한달 용돈), 음주태도 9문항(신체영향, 성별에 따른 음주여부, 첫 음주시기, 첫 음주 함께한 사람, 첫 음주 이유, 주로 음주하는 사람,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 혼자 마신 경험, 혼자 마시는 이유), 음주행태 6문항(음주비용, 음주섭취량, 음주횟수, 과음횟수, 술의 유형, 음주장소)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05$ 에서 검증하였다. 남녀별로 음주태도 및 음주행태에 따라 각 조사항목별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음주태도 및 음주행태에 대해 남녀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설은 교차분석 χ^2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대학생 전체성별의 경우 남자 53.0%, 여자 47.0%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은 19세 이하가 45.6%로 과반수 가까이 되었으며 20~22세 32.1%, 23세 이상 22.3%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54.1%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였고 3학년 19.4%, 2학년 15.2%, 4학년 11.3%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은 남자가 25~30만원 미만이 21.3%로 가장 많았고, 20~25만원 미만이 20.7%, 15만원 미만이 14.4%, 30~35만원 미만이 13.8%, 15~20만원 미만이 11.7%, 40만원 이상이 11.2%, 35~40만원 미만이 6.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25만원 미만이 21.0%로 가장 많았고, 25~30만원 미만이 20.4%, 30~35만원 미만이 19.8%, 15~20만원 미만이 16.2%, 15만원 미만이 10.2%, 40만원 이상이 7.2%, 35~40만원 미만이 5.4%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355)

General characteristics		N(%)	X^2 (p)
Gender	Male	188(53.0)	.082(.774)
	Female	167(47.0)	
Age	<19	162(45.6)	.855(.652)
	20~22	114(32.1)	
	>23	79(22.3)	
Grade	1st	192(54.1)	1.871(.600)
	2nd	54(15.2)	
	3rd	69(19.4)	
	4th	40(11.3)	
Monthly pocket money (KRW)	≤ 150,000	44(12.4)	6.278(.393)
	150,000~200,000	49(13.8)	
	200,000~250,000	74(20.8)	
	250,000~300,000	74(20.8)	
	300,000~350,000	59(16.6)	
	350,000~400,000	22(6.2)	
≥ 400,000	33(9.3)		
		355(100.0)	

음주실태를 조사한 Jung (2008)의 연구결과 남학생의 90.6%, 여학생의 87.3%가 술을 마신다고 답하였다. 이는 전체성인의 평생 음주 경험율이 87.7%와 비교하여 약간 높았으며, 음주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는 자주 마시기보다는 가끔 마신다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기는 하지만($p<0.001$) 그 추세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므로 여대생의 음주 대책 마련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2. 음주 태도

조사대상자의 음주 태도는 Table 2와 같다. 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자는 알고 있다 31.4%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알고 있다 30.3%, 보통 29.3%, 대체로 모른다와 전혀 모른다가 각각 4.8%, 4.3%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42.5%가 보통이라고 했으며, 28.7%가 대체로 알고 있다, 22.2%가 알고 있다, 6.6%가 대체로 모른다 순으로 나타나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음주 관련 지식이 높다고 음주 문제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음주가 지방간이나 당뇨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은 잘 알고 있는 내용(Oh 2011)인데 반해, 그 원인이 알코올의 높은 열량에 기인하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지식 전달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성에 따른 음주여부를 살펴보면 남자는 성에 관계없이 괜찮다고 한 응답이 58.5%로 가장 많았고 성에 관계없이 좋지 않다가 33.5%, 남성은 괜찮다는 5.3%, 여성은 괜찮다가 2.7%순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여자는 62.3%가 성에 관계없이 괜찮다고 하였으며 37.7%가 성에 관계없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여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본 연구결과 과반수이상의 대학생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음주가 괜찮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음 세대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성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약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Oh 2011).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음주실태가 남성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의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시기로는 남자는 고등학교

때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때가 29.3%, 대학교 1학년 때가 13.3%, 초등학교 2.7%, 대학교 1학년 이후가 1.1% 순으로 고등학교 시절 술을 처음 마신다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다. 여자는 고등학교 때가 44.3%, 중학교 때가 29.3%, 대학교 1학년 24.6%, 초등학교 1.8%순으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는 Kim et al. (2011)의 연구결과에서 처음 음주시기로 고등학교가 41.0%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32.3%, 중학교 21.3% 순으로 나타난 것과 약간 차이를 보였다. 처음 음주한 시기가 초등학교일 때 음주문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err et al. (2012)의 연구에서 조기음주는 성인이 되었을 때 문제음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과 일치한다. 아동기 때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청소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신체적 성장 장애를 가져오고 또한 잘못된 음주습관이 생길 경우 폭행과 가출 등 비행과 관련될 수 있다 (Gmel & Rehm 2003).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시게 된 사람으로 남자는 친구 및 동료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은 17.6%, 형제 및 선배가 10.1%, 기타가 1.6%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79.0%가 친구 및 동료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4.4%가 부모님, 5.4%가 형제 및 선배, 1.2%가 기타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 모두 친구 및 동료와 처음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이유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모임 또는 기념일이 있어서가 각각 37.8%, 49.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자는 29.8%로 별 이유없이, 16.5%가 호기심으로, 12.2%가 친구 따라서, 3.7%가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여자는 22.2%가 호기심으로, 14.4%가 별 이유없이, 9.6%가 친구 따라서, 4.2%가 기타라고 답변하여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Oh (2011)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자는 술을 마심으로써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시 합리적 과정 외에 감정적으로 처리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친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제를 할 수 있는 건전한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주로 술을 마시는 상대로는 남자는 91.04%가 친

Table 2. Drinking Attitudes of Respondents (N=355)

Drinking Attitudes		Male	Female	N(%)	X ² (p)
Understanding the effect of alcohol on the body	Yes	59(31.4)	37(22.2)	96(27.0)	14.855* (.005)
	Mostly yes	57(30.3)	48(28.7)	105(29.6)	
	Generally	55(29.3)	71(42.5)	126(35.5)	
	Generally not	9(4.8)	11(6.6)	20(5.6)	
	Never	8(4.3)	-	8(2.3)	
Stereotype of drink	Good regardless of gender	110(58.5)	104(62.3)	214(60.3)	13.975* (.003)
	Females are fine	5(2.7)	-	5(1.4)	
	Males are fine	10(5.3)	-	10(2.8)	
	Not good regardless of gender	63(33.5)	63(37.7)	126(35.5)	
Age at the first drink	Primary school	5(2.7)	3(1.8)	8(2.3)	9.682* (.046)
	Middle school	55(29.3)	49(29.3)	104(29.3)	
	High school	101(53.7)	74(44.3)	175(49.3)	
	University	25(13.3)	41(24.6)	66(18.6)	
	After university	2(1.1)	-	2(0.6)	
Drinking companion at the first drink	Parents	33(17.6)	24(14.4)	57(16.1)	3.968 (.265)
	Brothers	19(10.1)	9(5.4)	28(7.9)	
	Friends	133(70.7)	132(79.0)	265(74.6)	
	Other	3(1.6)	2(1.2)	5(1.4)	
Reasons for starting to drink	Curiosity	31(16.5)	37(22.2)	68(19.2)	14.329* (.006)
	Relationship building	71(37.8)	83(49.7)	154(43.4)	
	Just to drink	56(29.8)	24(14.4)	80(22.5)	
	Friends	23(12.2)	16(9.6)	39(11.0)	
	Other	7(3.7)	7(4.2)	14(3.9)	
Main drinking companions	Parents	5(2.7)	5(3.0)	10(2.8)	.512 (.916)
	Brothers	10(5.3)	7(4.2)	17(4.8)	
	Friends	171(91.0)	154(92.2)	325(91.5)	
	Other	2(1.1)	1(0.6)	3(0.8)	
Major reasons for drinking	Relationship building	77(41.0)	82(49.1)	159(44.8)	14.039* (.003)
	Celebration	17(9.0)	31(18.6)	48(13.5)	
	The mood	87(46.3)	51(30.5)	138(38.9)	
	Other	7(3.7)	3(1.8)	10(2.8)	
History of drinking alone	Yes	80(42.6)	42(25.1)	122(34.4)	11.876* (.001)
	No	108(57.4)	125(74.9)	233(65.6)	
Reasons for drinking alone	Sad	29(29.0)	17(34.0)	46(30.7)	4.443 (.217)
	Worried	18(18.0)	3(6.0)	21(14.0)	
	Bored	39(39.0)	24(48.0)	63(42.0)	
	Other	14(14.0)	6(12.0)	20(13.3)	
		188(53.0) (100.0)	167(47.0) (100.0)	355(100.0)	

*p<.05 for the X²- test.

구 및 동료, 5.3%가 형제 및 선배, 2.7%가 부모님, 1.1%가 기타 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92.2%가 친구 및 동료, 4.2%가 형제 및 선배, 3.0%가 부모님, 0.6%가 기타라고 답변하였다. 남자와 여자 모두 주로 친구 및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다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남자는 46.3%가 기분에 따라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1.0%가 모임 및 교제, 9.0%가 생일 및 기념일, 기타가 3.7%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49.1%가 모임 및 교제가 가장 많았고, 30.5%가 기분에 따라, 18.6%가 생일 및 기념일, 기타가 1.8%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Kim (2009)은 대학생 음주자를 대상으로 음주 동기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의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술 자체를 즐기거나 기분 전환을 위하여 음주를 하며,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외향적인 부류는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가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선후배나 동기 등 주변에 대한 의식 때문에 마시고 싶지 않은 술을 억지로 마시는 음주관행에서 점차 자유로워지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도 보고하였다.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은 남자가 42.6%, 여자가 25.1%로 남자가 여자보다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나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혼자 술을 마신 이유로는 남자가 39.0%가 별 이유없다라고 응답하였고, 29.0%가 힘들고 울적해서, 18.0%가 고민이 있어서, 14.0%가 기타라고 답변하였다. 여자는 42.0%가 별 이유 없이 마신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7%가 힘들고 울적해서, 14.0%가 고민이 있어서, 13.39%가 기타라고 답변하였다. 기타 답변으로는 외로워서, 자취를 하다 보니 심심해서라는 답변이 있었다. Kim & Kim (2009)의 연구와 Yang & Han (2003)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음주를 하는 이유가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한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스트레스를 음

주가 아닌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음주 행태

조사대상자의 음주 행태는 Table 3과 같다. 1회 음주 시 지출하는 비용으로 남자는 1~2만원 미만이 65.4%로 가장 많았으며, 3~4만원 미만이 26.67%, 5만원 이상이 4.8%, 4~5만원 미만이 3.2%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1~2만원 미만이 7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4만원 미만이 19.8%, 4~5만원 미만이 2.4%, 5만원 이상이 1.2%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1회 음주 시 알코올 섭취량(소주잔 기준)으로 남자는 7잔 이상이 39.9%로 가장 많았으며, 불규칙하다가 25.5%, 5~6잔이 15.4%, 3~4잔이 13.8%, 1~2잔이 5.3%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7잔 이상이 25.1%로 가장 많았고, 5~6잔이 24.6%, 3~4잔이 19.2%, 불규칙하다가 18.6%, 1~2잔이 12.6%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33.3%는 소주 1병(7잔 이상) 이상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29세 청년층의 경우 7~9잔 마시는 비율은 남자 28.5%, 여자 15.5%였고, 10잔 이상 마시는 비율은 남자 27.3%, 여자 4.8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로서 대학생들의 음주실태가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주 음주 횟수는 남자가 주 1~2회가 47.9%로 가장 많았으며, 주 3~4회가 22.9%, 불규칙하다가 22.3%, 주 5~6회가 4.3%, 주 7회 이상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주 1~2회가 51.5%로 가장 많았으며, 불규칙하다가 26.9%, 주 3~4회가 16.2%, 주 5~6회가 3.6%, 주 7회 이상이 1.8% 순으로 남녀 간 음주횟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대학생들의 음주실태를 조사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대학생의 9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hun et al. 2000; Lee 2001; Rhim et al. 2004). 1회 음주량은 남학생의 66.4%가 소주 7잔 또는 맥주 9잔 이상을 마시며, 소주 5잔 또는 맥주 6잔 이상을 마시는 여학생은 52.0%로서, 위해 음주량 이상 섭취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Lee 2003; Yang 2005). 대학생의 잦은 음주빈도와

Table 3. Drinking Behaviors of Respondents (N=355)

Drinking Behaviors		Male	Female	N(%)	X ² (p)
Cost of each drinking occasion (KRW)	10,000~20,000	123(65.4)	128(76.6)	251(70.7)	7.219 (.065)
	30,000~40,000	50(26.6)	33(19.8)	83(23.4)	
	40,000~50,000	6(3.2)	4(2.4)	10(2.8)	
	≥ 50,000	9(4.8)	2(1.2)	11(3.1)	
Drinking amounts (glasses of soju)	1~2	10(5.3)	21(12.6)	31(8.7)	18.369* (.001)
	3~4	26(13.8)	32(19.2)	58(16.3)	
	5~6	29(15.4)	41(24.6)	70(19.7)	
	≥ 7	75(39.9)	42(25.1)	117(33.0)	
	Not constant	48(25.5)	31(18.6)	79(22.3)	
Frequency of drinking (times/week)	1~2	90(47.9)	86(51.5)	176(49.6)	3.407 (.492)
	3~4	43(22.9)	27(16.2)	70(19.7)	
	5~6	8(4.3)	6(3.6)	14(3.9)	
	Daily	5(2.7)	3(1.8)	8(2.3)	
	Not constant	42(22.3)	45(26.9)	87(24.5)	
Frequency of heavy drinking	Never	68(36.2)	54(32.3)	122(34.4)	11.169* (.048)
	1~2 / week	25(13.3)	11(6.6)	36(10.1)	
	1~3 / month	28(14.9)	30(18.0)	58(16.3)	
	1~3 / 3 month	36(19.1)	35(21.0)	71(20.0)	
	1~3 / year	21(11.2)	33(19.8)	54(15.2)	
Type of alcoholic beverage	Everytime	10(5.3)	4(2.4)	14(3.9)	12.766* (.012)
	Whisky and cocktails	15(8.0)	8(4.8)	23(6.5)	
	Beer	40(21.3)	62(37.1)	102(28.7)	
	Soju	125(66.5)	87(52.1)	212(59.7)	
	Makgeolli	2(1.1)	3(1.8)	5(1.4)	
Place of drinking	Other	6(3.2)	7(4.2)	13(3.7)	9.658* (.022)
	Restaurant	41(21.8)	61(36.5)	102(28.7)	
	Pubs	141(75.0)	101(60.5)	242(68.2)	
	House	2(1.1)	1(0.6)	3(0.8)	
	Other	4(2.1)	4(2.4)	8(2.3)	
		188(53.0) (100.0)	167(47.0) (100.0)	355(100.0)	

*p<0.05

높은 음주량은 알코올 의존 및 음주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과음 횟수는 남자가 전혀 없다는 비율이 36.2%로 가장 많았고 3 개월에 1~3회가 19.1%, 1 개월에

1~3회가 14.9%, 주 1회 이상이 13.3%, 1년에 1~3회가 11.2%, 매번 과음한다가 5.3%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32.3%가 전혀 없다고 답변하였고, 다음으로 3개월에 1~3회가 21.0%, 1년에 1~3회가 19.8%, 1개월에 1~3회가 18.0%, 주 1회 이상이 6.6%, 매번 과

음한다가 2.4%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고위험음주는 나라마다 혹은 정의하는 기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1회 음주량이 대략 소주 6잔 이상 혹은 맥주 2000cc 이상인 경우를 고위험 음주의 기준으로 삼는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Oh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원주 지역 대학생들의 고위험음주 빈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으나($p<0.001$), 한 달에 평균 1번 이상이 남학생 87.2%, 여학생 77.2%였고 거의 매일 과음을 하는 경우는 남녀 각각 26.8%, 15.0%로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과음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생들의 문제음주 습관은 체계적인 절주교육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수정, 예방될 수 있다.

즐거 마시는 술의 유형으로 남자는 소주가 66.5%로 가장 많았으며, 맥주 21.3%, 양주 및 칵테일 8.0%, 기타 3.2%, 막걸리 1.1%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52.1%가 소주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맥주 37.1%, 양주 및 칵테일 4.8%, 기타 4.2%, 막걸리 1.8%순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주로 술을 마시는 장소로는 남자 75.0%가 주점 및 소주방으로 가장 많았고, 호프 및 레스토랑 21.8%, 기타 2.1%, 집 1.1%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60.5%가 주점 및 소주방으로 가장 많았고, 36.5% 호프 및 레스토랑, 기타 2.4%, 집 0.6% 순으로 나타나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과도한 음주행위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잘못된 음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절주를 위한 실천적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제공되는 것도 필요하며, 이때 대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내용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효율적일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음주태도 및 음주행태를 조사하여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355명(남자 188명, 여자 167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음주태도를 조사한 결과 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남자는 알고 있다가 31.4%로 가장 많았으며, 여자는 42.5%가 보통이라고 답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성에 따른 음주여부는 성별에 관계없이 괜찮다는 답변이 남자 58.5%, 여자 62.3%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이를 통해 남녀 대학생 모두 여성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시기는 남자 53.7%가 고등학교, 여자 44.3%가 고등학교 때가 가장 많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처음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남자 70.7%, 여자 79.0%가 친구 및 동료와 함께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남자 37.8%, 여자 49.7%가 모임 또는 기념일로 답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은 남자 91.04%, 여자 92.2%가 친구 및 동료라고 답변하였고, 주로 술을 마시는 이유는 남자 46.3%가 기분에 따라서, 여자 49.1%가 모임 및 교제라는 답변이 많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혼자 술을 마신 경험은 남자 42.6%, 여자 25.1%로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그 이유로는 남자 39.0%, 여자 42.0%가 별 이유없이, 힘들고 울적해서, 고민이 있어서, 기타(외로워서, 심심해서)라고 답변하였다.

음주 행태를 살펴보면 1회 음주 시 지출하는 비용은 남자 1~2만원 미만인 65.4%, 여자는 76.6%가 1~2만원 미만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5$). 1회 음주 시 알코올 섭취량은 남자 39.9%, 여자 25.1%가 소주 7잔 이상을 마셨다($p<0.05$). 1회 음주 횟수는 남자 47.9%, 여자 51.5%가 주 1~2회로 가장 많았고, 과음 횟수는 남녀 모두 전혀 없다, 3개월에 1~3회 순으로 나타났다($p<0.05$). 즐겨 마시는 술의 유형은 남녀 모두 소주, 맥주, 양주 및 칵테일, 기타, 막걸리($p<0.05$)이며, 주로 술을 마시는 장소는 주점 및 소주방, 호프 및 레스토랑, 기타, 집($p<0.0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음주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음주의 빈도와 양을 감소시키는 절주가 필수적인데, 우리나라의 음주문화의 특성은 취중에 한 행동은 쉽게 허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고, 술을 많

이 마시는 것이 자랑거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인식 그리고 음주를 대인관계를 이어주는 매개로 생각하는 경향(Yang & Han 2003) 등 음주에 대해 매우 관대하기 때문에 음주의 빈도와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음주문제 발생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음주에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주문제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및 예방홍보 캠페인,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M.T 등에서의 특강이나 캠페인, 기타 학교의 특강이나 캠페인 등이 있다. 학교 내에서의 스포츠 및 문화 활동 등 음주 대안 활동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것도 좋은 예이다. 이제 곧 사회인이 될 대학생들에게 절주라는 좋은 음주 습관을 길러준다면 사회에 퍼져 있는 음주 폐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음주 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References

- Cheong SH, Na YJ, Lee EH, Chang KJ (2007) Anthropometric measurement, dietary behavior, health-related behaviors and nutrient intake according to lifestyle of college students. *J Korea Soc Food Sci Nutr* 36, 1560-1570
- Choi MK, Jun YS, Kim AJ (2001) A comparative study of dietary behaviors and nutrient intakes according to alcohol drinking among male university students in Chungnam. *J Korea Soc Food Sci Nutr* 30, 978-985
- Chun SS (2002) Analysis of college students binge drinking and alcohol-related problems. *J Korean Alcohol Science* 3(2), 221-233
- Chun SS, Lee JY, Lee YP, Ko BJ, Jung JH, Park JS (2000) Development of prevention program drinking in the universit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port pp8-11
- Gmel G, Rhem J (2003) Harmful alcohol use. *Alcohol Research Health* 27, 52-62
- Jung EH (2004) Drinking status and dietary habits of middles school students in Chungcheong area.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5(2), 73-82
- Jung EH (2008)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dietary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Chungbuk area.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9(1), 135-144
- Kerr DC, Capaldi DM, Pears KC, Owen LD (2012)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on early alcohol use: independence from the problem behavior pathway. *Dev Psychopathol* 24(3), 559-906
- Kim JK, Kim JS (2010) Alcohol consumption and drink-related behavior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Daegu: a comparison of 1999 and 2009. *Korean J Human Ecology* 19(3), 577-588
- Kim KH, Han JS (2011) A study on the awareness of medical and health-related majors on drinking culture. *J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1), 5043-5048
- Kim MS, Kim MH (2009) Factors influencing on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among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3(1), 50-60
- Kim MJ (2009) The effect of personal value on drinking motive: focus on undergraduate student drinkers. *Korean J Food Culture* 24(4), 376-384
- Lee WJ (2001) Drinking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Dept of Health Care Management* 10, 79-95.
- Lee WJ (2003)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problem drinking. *J Kor Soci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3), 109-124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The Korean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p62-65, 166-169, 282-283
- Nam KA (2009) An investigation into psychosocial variables associated with alcohol-related problems of college students. *J Korea Acad Psychistr Ment Health Nurs* 18, 501-511
- Oh HS (2011) Alcohol consumption rates and the perception of drinking cultures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Wonju area. *Korean J Food Culture* 26(2), 101-112
- Rhim KH, Lee JH, Choi MK, Kim CJ (2004)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college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habits.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es* 30(1), 57-70
- Yang KM (2005) A survey on nutrient intake of university students by alcohol intake. *J the Korean dietetic association* 11(1), 1-10
- Yang SH, Han KS (2003) Drinking pattern, problem related drinking, perceived stress, ways of coping and symptoms of stress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3(7), 1057-1064